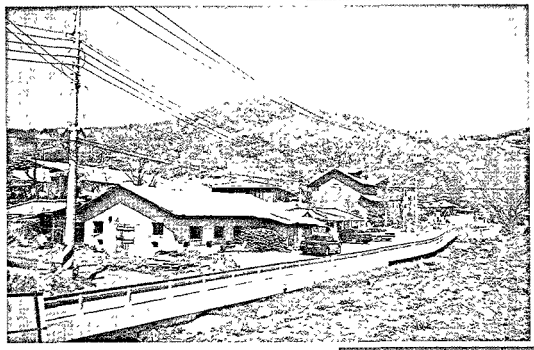


## VIII. 의왕시의 지명유래

음 정 배 편(의왕문화원 사무국장)



- \* 본문에서 사용된 □는 자연취락명을, ○는 일반지명을 표시한다.
- \* 제보자 옆에 병기된 내용은 생년월일, 주소이다. 예를 들어 최중근(1929. 12. 14. 고천동 266)은 '제보자는 최중근이고 그의 생년월일은 1929년 12월 14일이며, 고천동 266번지에 살고 있음' 을 나타낸다.
- \* 이 글은 다음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의왕시, 1992, 『의왕시 전통과 문화』  
이명규, 1990, 『의왕지역의 지명고찰』 I

## 1. 고천동(古川洞)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왕륜면의 평사천(坪沙川), 고정동(古井洞), 고고리(古古里), 내곡동(內谷洞)이었다가 1914년 부령 제111호에 따라 수원군 의왕면 고천리로 되었다. 그 후 1936년 10월 1일 일왕면 고천리로 되었고, 1949년 8월 15일 화성군 일왕면 고천리로, 다시 1963년 1월 1일 시흥군 의왕면 고천리로, 이어 1980년 12월 1일 의왕읍 고천리로 되었다가 1989년 1월 1일 의왕시 고천동으로 되었다.

이 마을은 고정동과 고고리의 '古' 자와 평사천의 '川' 자를 다서 '古川洞' 이라 하였다. 이곳에는 의왕시 청사를 비롯하여 농협, 초등학교, 경찰지서 등이 자리잡고 있어 명실공히 의왕시 중심이다.

고천동에는 고고리, 고우물, 별사그네, 안골 등의 자연취락이 있다.

### □ 고고리(古古里)<sup>1)</sup>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왕륜면 고고리라 불렀다. 통미(通山) 서편에 있으며, 오봉산 깊은 골짜기 안에 자리잡은 마을이므로 '고고리' 라 부르고 있다.

이곳은 전주 이씨 전성군(성종의 아들)의 고손인 李楨이 좌승지를 역임한 후 이곳에 낙향하여 세거하면서 서촌락이 형성되었다. 1960년대 이전만 해도 他姓은 일체 살지 못할 만큼 전주 이씨의 누대의 세거지였다.

고고리 마을의 남쪽지역은 우묵한 곳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편의상 '우묵골' 이라 부르고 있으며 우묵골 남쪽은 '아랫말' 이라 부른다.

마을에서는 별사그네, 안골, 고우물 주민들과 함께 매년 음력 10월 초에 길일을 택해서 시 청사 뒤 산신제당에서 마을의 안정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 □ 별사그네(坪沙川)

의왕시 청사를 비롯하여 초등학교, 농협, 지서 등이 자리잡고 있는 의왕시의 중심이 되는 마을로 본래 모래벌이었다. 조선 제22대 정조대왕이 수원 화산릉(용릉)을 참배하기 위하여 지금의 시청사 자리에 행궁을 설치한 후, 현 길다방 부근에 주막과 민가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후 1914년 이곳이 수원군이 되면서 의왕

1) 이 마을은 통미 건너편 현 과천-봉담 고속도로가 경수 산업도로와 교차하는 지점의 서편 마을이다. 이 마을은 한자로 '고고리' 로 표기하는 자체가 이 마을의 유래를 알 수 없게 한다. '고고리' 는 원래 골짜기에서 연유된 이름임이 거의 확실시된다.



사진1. 고우물 전경

면 사무소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이어 1936년에 고천초등학교가 설립되면서 급격히 발달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왕륜면 평사천 이라 했던 별사그네는 고고리, 고우물, 안골 주민들과 함께 해마다 음력 10월 초에 길일을 택해서 시 청사 뒤에 있는 산신제당에서 마을의 안정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최종근(1929. 12. 14, 고천동 266)

#### □ 안골(內谷)

고우물 북쪽에 있는 마을로 오봉산 골짜기 안에 자리 잡은 마을이므로 '안골' 이라 부르고 있다.

청풍 김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는 안골은, 오봉정사 인근은 마을 위가 되므로 '윗말', 마을 초입은 마을 아래가 되므로 '아랫말' 이라 각각 부르고 있다.

마을에서는 별사그네, 고우물, 고고리 주민들과 함께 매년 음력 10월 초 길일을 택해서 시 청사 뒤 산신제당에서 마을의 안정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김봉탁(1916. 9. 1, 고천동 26-2)

#### ○ 사당골(祠堂谷)

고고리 서쪽에 있다. 조선시대에 이곳에 사당이 있었으므로 '사당골' 이라 부르고 있다. 이견욱(1918. 5. 24, 고천동 138)

#### ○ 송장골

동양 페인트 뒤에 있는 골짜기로 구전에 따르면 아주 오랜 옛날 골짜기 우물 옆 가시덤불 속에 불여우가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이 앞을 지나가는 행인을 해쳤는데, 그 후에도 많은 사람이 이 불여우에게 죽어갔다고 한다. 인근에서는 아이들이 울다가도 송장골 여우가 나타났다고 하면 울음을 그친다고 한다. 김홍성(1920. 4. 12. 왕곡동 4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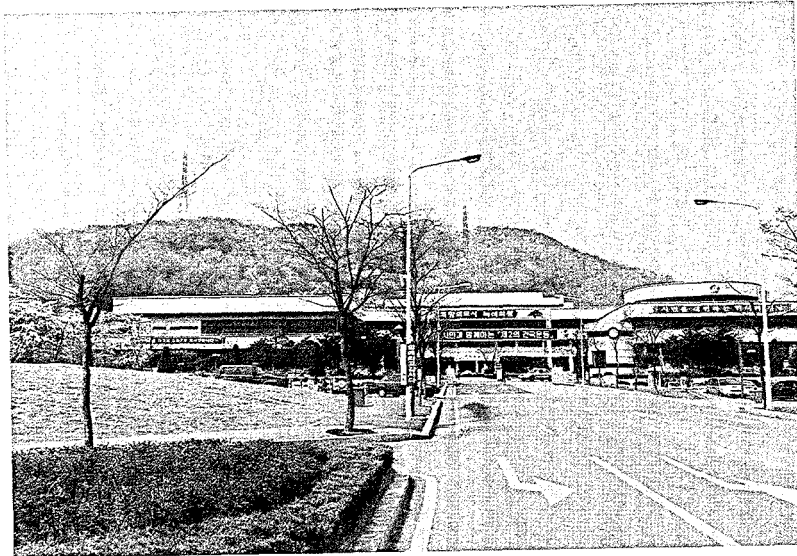


사진2. 오봉산 전경

### ○ 장다골

고고리 뒤(서쪽)에 있다. 골짜기가 좁고 길다고 하여 '장다골'이라 부르고 있다. 이견욱(1918. 5. 24. 고천동 138)

## 2. 내손동(內蓀洞)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의곡면 손동(蓀洞), 의일내동(義逸內洞), 갈산동(葛山洞)이었다가 1914년 부령 제111호에 따라 수원군 의왕면 내손리(內蓀里)로 되었다. 그 후 1936년 10월 1일 일왕면 내손리로 되었고, 1949년 8월 15일 화성군 일왕면 내손리로, 다시 1963년 1월 1일 시흥군 의왕면 내손리로, 이어 1980년 12월 1일 의왕읍 내손리로 되었다가, 1989년 1월 1일 의왕시 내손동으로 개칭되었다.

이 마을은 의일내동의 '內'자와 손동의 '蓀'자를 따서 '內蓀洞'이라 하였다. 내손동에는 갈미, 능안말, 능골, 아랫말, 오리나무골, 윗말 등의 자연취락이 있다.

### □ 능안말(陵內洞)

백운호수 남쪽으로 모락산 아래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구전에 의하면 조선 제17대 임금인 효종이 돌아가자 지금의 임영대군(1418~1469)의 묘자리가 장지(葬地)후보지로 선정되었으나 효종과 임영대군은 같은 왕족인 관계로 효종의 묘소를 여주로 정했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마을이 陵후보지였다고 하여 '능안말'이라 부르고 있다고 한다.

능안말은 조선 제4대 임금인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인 임영대군의 묘를 이곳에 쓰면서부터 후손들이 세거하여 취락이 형성되었다. 현재도 주민의 대부분이 임영대군의 후손들이다.

이곳에는 임영대군의 묘를 비롯하여 이옥정(李玉貞, 진천군), 이진(李鎭, 함경도절도사) 등의 묘가 있다. 이기호(1916. 9. 8. 내손동 35)

□ 손골(蓀洞)

계원여고 동쪽에 위치해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의곡면 손동이라 불렀다. 이곳은 예전부터 손초(孫草)가 무성하므로 '손골'이라 부르고 있는데, 전주 이씨 임영대군의 후손들이 처음으로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고경렬(1938. 12. 1. 내손동 341)

□ 아랫말

본래는 능안말 아래에 속한 마을로, 그 아래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므로 '아랫말'이라 부르고 있다.

○ 도깨비 시장

상가지역은 의왕시 내손동 710번지 폐전철 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1년 토지개발공사가 이 지역을 개발할 시 원주민들이 농사철에 조금 시간이 나면 광주리로 장사를 시작하였다.

사후 개발된 직후에 이용객이 급증(내손 1동, 2동 약 45,000여 시민)하자 하루가 다르게 우후죽순처럼 포장 가게가 생겨 도깨비 시장이라 칭하였다 한다.

현재 의왕시에서 도시 미관을 정화하기 위하여 임시 가건물 30동을 건설하여 폐전철 부지 타용도 사용 전까지 유도 노점상으로 존치 상태이다. 이경호(1944. 8. 22. 내손동 643-19)

○ 동이점골

토골 서쪽으로 조선시대에는 이곳에서 동이를 구었다고 한다. 현재 깨진 그릇 등이 출토되고 있으며 잡목만이 우거져 있을 뿐이다. 이기호(1916. 9. 8. 내손동 35)

○ 뒷골(後谷)

임영대군의 묘 뒤(좌청룡에 해당)로 골짜기가 넓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농경지이다. 이기호(1916.9.8. 내손동 35)

○ 뒷골(後谷)

임영대군의 사당이 있는 산등성이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능안말 뒤에 있는 골짜기이므로 '뒷골'이라 부르고 있다. 이기호(1916. 9. 8. 내손동 35)

○ 백호골(白虎谷)

임영대군의 묘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임영대군의 묘소가 풍수로 보아 우백호에 해당되므로 '백호골'이라 부른다. 이기호(1916. 9. 8. 내손동 35)

○ 뱀골

이 골짜기는 한국에너지 경제연구원 뒷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옛날 인근 거주 농민들이 청계동 소재 전담 농토를 경작하고자 할때 가는 지름길이다. 워낙 길이 뱀처럼 꼬불꼬불하게 생겼으며 또한 뱀들이 많아 '뱀골'이라 명명되었다. 이경호(1944. 8. 22. 내손동 64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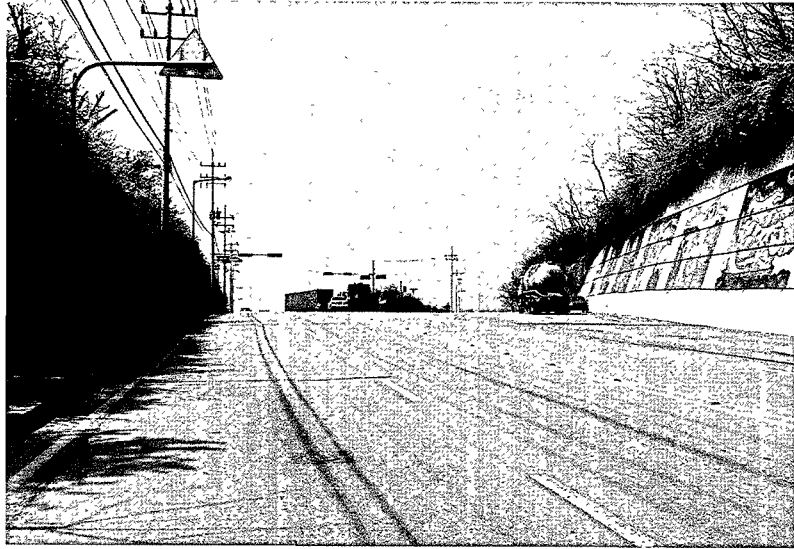


사진3. 환자고개

### ○ 문배나무골

신골 밑(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시대 말엽까지만 해도 문배나무가 많았다고 하나 현재는 잡목만이 우거져 있다.(문배나무는 능금나무과에 속하는 낙엽활엽 교목으로 잎은 거의 원형이고 4월에 흰꽃이 대형으로 짧은 가지 위에 핀다. 이 나무는 산록에서 자라는데 과실은 석세포가 많아 식용하기에 좋지 못하고 단지 접목할 때만 쓰일 뿐이다.) 이기호(1916. 9. 8. 내손동 35)

### ○ 방강골(方岡谷)

작은 검정골 서쪽으로 작은 산등성이었으나 현재는 농경지로 변모되었다. 이기호(1916. 9. 8. 내손동 35)

### ○ 배매공지

벽문에서 아랫마을 가는 길목이다. 이곳이 임영대군의 청룡뿌리 후미에 해당된다. 이기호(1916. 9. 8. 내손동 35)

### ○ 설경지(雪景地)

문배나무골 앞(동쪽)으로 모락산 아래가 음지라서 눈이 내려도 늦게까지 남아있는 곳이다. 이기호(1916. 9. 8. 내손동 35)

### ○ 양지편

안양 제2정수장 밑(서쪽)의 양지가 바른 곳이라 하여 '양지편' 이라 부르고 있다. 영은 목장이 있는 곳이다. 이종욱(1940. 1. 28. 내손동 319)

### ○ 원골(圓谷)

범바위의 남쪽에 있는 산골로 골짜기가 둥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기호(1916. 9. 8. 내손동 35)

○ 조피나무 골

오매기 고개 위에 있는 골짜기로 조피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으므로 '조피나무골'이라 불렀다. 그러나 현재 조피나무는 없고 잡목만이 우거져 있다.(조피나무는 은행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관목으로 '산초나무'라 부르기도 한다. 나무의 높이는 3m 가량이고 갈라진 가지에 한 쌍의 가시가 있으며 잎은 호생으로 특유한 향과 신미가 있어서 어린 잎과 과실은 향신료로 식용한다. 목재로는 지팡이를 만든다.) 이기호(1916. 9. 8. 내손동 35)

○ 큰 검정골

임영대군 후손들의 묘가 있는 곳으로 능안말 남쪽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현재는 일부가 농경지(밭)로 변모되었다. 이기호(1916. 9. 8. 내손동 35)

○ 큰 배골(大白虎谷)

이곳은 풍수로 보아 임영대군 묘의 우백호에 속한다. 묘에서 보아 남쪽에 해당된다. 이기호(1916. 9. 8. 내손동 35)

○ 토골(土谷)

동이점 옆(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토질이 좋지 않아 나무가 잘 자라지 않으며 자연석 등이 많이 산재해 있다. 이기호(1916. 9. 8. 내손동 35)

○ 통미(通尾)

웃말 남쪽으로 전주 이씨 임영대군 후손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조선시대에는 이곳이 문배나무골과 광대안을 통하는 길목이었다고 한다. 이기호(1916. 9. 8. 내손동 35)

3. 삼동(三洞)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왕륜면의 상장의(上莊義), 하장의(下莊義), 괴동(槐洞)이었다가 1914년 부령 제 111호에 따라 수원군 의왕면 삼리라 했다. 그 후 1936년 10월 1일 일왕면 삼리로, 다시 1963년 1월 1일 시흥군 의왕면 삼리, 이어 1980년 12월 1일 시흥군 의왕면 삼리로 되었다가, 1989년 1월 1일 의왕시 삼동으로 개칭되었다.

삼동에는 관사촌, 괴말, 아랫장안말, 윗장안말, 중간말 등의 자연취락이 있다.

부곡 전철역 앞(동쪽)에 있는 마을로 삼동의 자연취락 중 가장 변화한 곳이다.

이곳은 1900년 초에 경부선 부설로 부곡역이 생기면서부터 자연취락이 형성되었다. 그후 일제 말엽에 철도국 종사원을 위해 백여 호의 관사를 세우면서부터 인구가 늘기 시작하여 1974년 수도권 전철로 급격히 발달되었다. 신익균(1926. 6. 1. 삼동 88)



사진4. 관사촌

#### □ 괴말(槐洞)

미생물연구소 뒤(동북)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에 큰 괴목나무가 있었다 하여 '괴말'이라 부르고 있다. 조선시대에 광주군 왕륜면 괴동이라 불리던 이 마을은 윗장안말에 살던 평산 신씨 후손들이 분가를 하면서 세거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일제말엽에 철도관사를 지으면서 그곳에 살던 철거민들이 이주를 하여 인구가 늘기 시작하였다.

마을에서는 윗장안말, 중간말 주민들과 함께 2년마다 한 번씩 음력 10월 1일에 윗장안말과 아랫장안말 사이에 있는 산 정상에서 당제를 지내 오고 있다. 신만수(1921. 11. 19. 삼동 374-3)

#### □ 아랫장안말(下莊義)

윗장안말 아래에 자리잡은 마을로 현재 삼신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다. 이곳은 본래 농경지였다가 윗장안말에 살던 평산 신씨 후손들이 분가를 하면서 세거하자 취락이 형성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왕륜면 하장의라 불렸다.

#### □ 윗장안말(上莊義)

부곡 전철역 동쪽 산 밑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조선 중엽 평산 신씨 후손 중에 생활태도가 단정하고 의리가 강한 분이 살았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곳을 '장안말'이라 했는데, 높은 지대에 자리잡은 마을이므로 '윗장안말'이라 부르고 있다.

조선시대 광주군 왕륜면 상장의라 했던 윗장안말에서는 괴말, 중간말 주민들과 함께 2년마다 한 번씩 음력 10월 1일 윗장안말과 아랫장안말 사이에 있는 산 정상에서 당제를 지내오고 있다. 신창수(1906. 10. 22. 삼동 88)

#### □ 중간말

윗장안말과 아랫장안말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중간말'이라 부르고 있다. 이곳은 윗장안말에 살던



평산 신씨 후손들이 분가를 하면서부터 촌락이 이루어졌다.

마을에서 윗장안말, 괴말 주민들과 함께 년마다 한 번씩 음력 10월 1일 윗장안말과 아랫장안말 사이에 있는 산 정상에서 당제를 지내오고 있다. 신창수(1906. 10. 22. 삼동 88)

○ 각골(角谷)

회나무골 옆(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의 모습이 마치 소 뿔처럼 생겼다. 신창수(1906. 10. 22. 삼동 88)

○ 괴말고개(槐洞峴)

괴말과 관사촌 사이에 있는 고개로 일명 '앞산 고개' 라 부른다. 신만수(1921. 11. 19. 삼동 374-3)

○ 구정 터(舊亭地)

현재 미생물연구소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정자가 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농경지로 되어 있다. 신만수(1921. 11. 19. 삼동 374-3)

○ 늘우물

중간말 서북간 논 가운데 있는 우물이다. 샘물이 잘 나와 항상 물이 흐르고 있다. 신창수(1906. 10. 22. 삼동 88)

○ 능모래이

괴말 서쪽으로 마을 초입 산 모퉁이를 말한다. 신만수(1921. 11. 19. 삼동 374-3)

○ 능안

윗장안말과 아랫장안말 사이에 있는 당집 아래(남쪽)를 말한다. 신창수(1906. 10. 22. 삼동 88)

○ 당산이골

괴말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아랫장안말과 윗장안말 사이 산등성이에 당이 있으므로 '당산이골' 이라 부른다고 한다.

○ 섬골

철도전문대학 뒤(동북쪽)에 있다. 농경지 가운데 묘가 있었는데, 그 모습이 섬같다 하여 이 주변 일대를 '섬골' 이라 부르고 있다. 이 묘는 1980년 초에 이장되었다. 신인수(1913. 8. 17. 삼동 192-9)

○ 섬지골

윗장안말과 괴말 사이로 당산이골 동쪽을 말한다. 현재는 농경지로 되어 있다. 신인수(1913. 8. 17. 삼동 192-9)

○ 양푼배미

섬골 밑(서남쪽)에 있는 논으로 모습이 양푼처럼 생겼다. 신창수(1906. 10. 22. 삼동 88)

## ○ 장승거리

대우아파트 동북간에 위치한다. 조선시대 이래로 장승이 있어 이곳을 '장승거리'라 부르고 있다. 신익균(1926. 6. 1. 삼동 88)

## ○ 큰골

윗장안말에서 철도전문대학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윗장안말에서 제일 큰 골짜기이다. 신인수(1913. 8. 17. 삼동 192-9)

## ○ 회나무골

중간말 앞(남쪽)에 있는 산골짜기로, 이곳에 큰 회나무가 있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신창수(1906.10. 22. 삼동 88)

## 4. 오전동(五全洞)

오전동은 '오마동'의 '오'와 '전주동'의 '전'을 따서 1914년 지명 통폐합 시 '오전동'이라 하여 수원군 의왕면 오전리로 된 후 현재의 오전동에 이르기까지 수원군 일왕면, 화성군 일왕면, 시흥군 일왕면, 시흥군 의왕읍 등의 오전리가 되었다가 의왕시 오전동으로 발전해 왔다.

## □ 가운데말

사나골과 뒷골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오매기의 여러 취락 중 가운데에 있는 마을이므로 '가운데말'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백운동 주민들은 이 마을을 '건너말'이라 부른다.

문화 류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는 마을로 오매기의 자연취락 중 가장 큰 마을이다.

마을에서는 용머리, 뒷골, 사나골, 백운동 등 오매기 주민들과 함께 매년 10월 초에 길일을 택해 강산에서 산신제를 지내오고 있다. 류병렬(1916. 6. 10. 오전동 551)

## □ 뒷골(後谷)

백운동과 가운데말 사이에 위치해 있다. 가운데말 뒤에 있는 마을이므로 '뒷골'이라 부르고 있으며 교하 노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마을에서는 용머리, 사나골, 가운데말, 백운동 등 오매기 주민들과 함께 매년 10월 초에 길일을 택해 강산에서 산신제를 지내오고 있다. 노장춘(1920. 4. 5. 오전동 750)

## □ 등척골

의왕중학교와 시흥병원이 들어선 마을이다. 이곳 뒷산에 등나무가 많으므로 '등척골'이라 부르고 있다.

등척골은 전주 이씨 근령군파 후손인 이용(1565년 10월 12일~1616년 1월 4일)의 묘를 이곳에 쓴 후 그의 아들 이정집(1597년 8월 6일~1671년 3월 21일, 문과에 급제한 후 황주목사를 역임)이 묘하에 살면

서 취락이 형성되었다.

마을에서 옷우물, 전주남이 주민과 함께 매년 음력 10월 1~3일 중에서 길일을 택해 이곳 뒤에 있는 병풍산에서 산신제를 지내오고 있다. 이형상(1921. 11. 1. 오전동 35)

#### □ 목배미

용머리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인동 장씨의 오랜 세거지로 마을 앞의 논이 기름진 문전옥답이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서울, 과천, 수원을 왕래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만큼 교통의 중요한 곳이었다. 류지선(1947. 12. 10 오전동 51)

#### □ 백운동(白雲洞)

오전저수지 밑에 있는 마을로 백운산 아래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백운동'이라 부른다.

경주 김씨와 광주 노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는 이 마을은 사나골, 건너말(가운데말), 용머리 등 오매기 주민들과 함께 매년 10월 초에 길일을 택해 강산에서 산신제를 지내오고 있다. 류병렬(1916. 6. 10. 오전동 551)

#### □ 사나골(山岳谷)

문화 류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는 마을로 1600년대 초에 문화 류씨 하정공과 후손인 유향(절충장군을 역임)이 처음으로 터를 잡은 후 그의 후손들이 거하면서 취락이 형성된 곳이다.

오매기 서쪽에 있는 이 마을은 산악골짜기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하여 '산악골'이라 했는데, 후대에 내려오면서 '사나골'로 불리우고 있다.

마을에서는 용머리, 가운데말, 백운동 등 오매기 주민들과 함께 매년 10월 초에 길일을 택해서 강산에서 산신제를 지내오고 있다. 류병렬(1916. 6. 10. 오전동 551)

#### □ 성나자로원 마을

모락산 아래에 자리잡은 마을로 광복 이전만 해도 이곳은 산야였으며, 광복 후 서울 세브란스의전 출신인 소진택 박사에 의해 폐결핵 요양소가 설치되었다.

그 후 1952년 6월 2일 조지캐롤 안주교에 의해 성나자로 마을이 생기게 되었다.

「누가복음(16, 19~31)」을 보면, 나자로라는 거지가 중기 투성이의 몸으로 부자의 식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주린 배를 채우며 살다가 얼마 뒤에 죽어서 부활하여 천사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다는 내용에서 '성나자로 마을'이라 명명한 것이다.

안양시와 의왕시의 경계인 포도원 입구에서 수원방면으로 국도를 따라가다 동편으로 보면 '새삶의 예수' 석고상이 있고 그 뒤로 십자가가 세워진 아치에는 성나자로원 마을 안내판이 있다.

성나자로원은 나환자의 조기치료와 보호 및 불구, 그리고 노령환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불구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실시하고 나자로원 돕기후원회와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다.

성나자로원의 초대 원장은 이경재 신부로 그는 1926년 2월 9일 황해도 서흥에서 출생하여 1951년 4월 3일 서울기독교대학을 졸업하고 그 해(1951)신부가 된 후 해군 중군신부로서 임무를 끝내고 모두 다 외면하는 성나자로원을 자원하여 1952년 초대 원장으로 부임하였다. 빈곤과 병고와 한숨만이 맞아주는 나자로원을 위해 헌신 봉사한 공로로 1979년 12월 28일 새마을훈장 근면상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사진5. 성나자로원 마을 입구

성나자로원은 처음에는 1950년 광명시(전 시흥군 서면)에 설립되었다가 1951년 7월 5일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그 후 1971년 4월 3일 나자로 돕기후원회가 발족되었고 10년 후인 1981년 11월 15일에는 본당으로 승격되었다. 그 후에도 아론의 집(1984년 5월 8일)과 불구노약자의 집(1986년 7월 14일) 등이 차례로 준공되었다.

1988년 7월 현재 성나자로원 마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형상(1921. 11. 1. 오전동 351)

성나자로원 마을의 현황

토지	임야	논	밭	대지	환자현황	
					수용능력	수용인원
121,069평	103,512평	3,217평	3,486평	10,854평	180명 (남자90, 여자90)	150명 (남자93, 여자57)

□ 오매기

삼태기처럼 깊은 골짜기에 자리잡고 있어 예로부터 국가의 전란 등이 일어나면 피난의 최적지였다. 본래는 전주남이 동쪽으로 용머리, 사나골, 윗골, 가운데말, 백운동, 목배미 등을 통털어 오매기라 불러 왔다.

이 마을은 문화 류씨를 비롯하여 文씨, 陳씨, 廣州 盧씨, 馬씨 등이 각기 1막씩을 짓고 살아 ‘오막동(五幕洞)’ 이라고 했다가 조선 말엽에 이르러 ‘오매기(五馬洞)’ 로 되었다고 한다. 마을에서는 백운동, 용머리, 가운데말, 사나골 등의 주민들과 함께 매년 음력 10월 초에 길일을 택해 강산에서 산신제를 지내오고 있다. 이형상(1921. 11. 1 오전동 351)

□ 용머리(龍頭洞)

오매기 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풍수로 보아 하천의 물 흐르는 형태가 이곳에 이르러 용의 머리처럼 휘돌아가므로 ‘용머리’ 라 부르고 있다. 그런데 용의 머리 부분은 일제 말엽에 도로를 개설할 때 파손되었다.



사진6. 오매기마을 전경

이 마을은 광복 이전만 해도 인동 장씨 등 불과 서너 가구밖에 안되었다가 1960년대 초부터 민가가 늘기 시작하였다.

마을에서는 사나골, 건너말, 백운동 등 오매기 주민들과 함께 매년 10월 초에 길일을 택해 강산에서 산신제를 지내오고 있다. 김기덕(1935. 6. 5 오전동 345)

#### □ 전주남이(全朱洞)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왕륜면 전주동이라 불렀다. 등척골과 오매기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경주 김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구전에 따르면 조선 중엽에 전주동이란 큰 부자가 이 마을에 살았는데, 하루는 시주하러 온 스님을 부자가 박절하자 이에 화가 난 스님이 양심을 품고 뒷산에 穴을 뚫으면 더 큰 부자가 된다고 알려주자 이 말을 사실로 안 전주동은 스님이 알려준 대로 산의 혈을 뚫었는데, 그 후 얼마가지 않아 망했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마을은 전주동이 살던 마을이라 하여 '전주남이(全朱洞)'라 부르고 있다.

마을에서는 등척골, 옷우물 주민들과 함께 매년 음력 10월 초에 길일을 택해 병풍산에서 산신제를 지내오고 있다. 이형상(1921. 11. 1. 오전동 351)

#### □ 미륵재

성나자로원 마을 입구에서 동쪽으로 올라가 과천 가는 구도로 위에 있다. 임진왜란 때 왜장 가등청정이 조선에서 큰 인물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님으로 변장하고 이곳에 미륵을 세웠다고 한다.

그런데 그 미륵은 1952년 11월경 의왕시 내손동 출신인 고금동(1911년 생) 씨가 내손동 오리나무골에 있는 금산사에 봉안하였다고 한다. 박용익(1920. 3. 24. 교천동 156)

#### ○ 원골(院谷)

성나자로원 마을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현재는 마을이 들어서 있다. 조선시대에 이곳에는 院이 있었다

고 한다.

### ○ 장승거리

유한양행 입구 인근에 예전에 장승(長丞)이 있었으므로 '장승거리(長丞巨里)' 또는 '장승박이'라 부른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에 이르러 공장지대로 변모되었다. 이위상(1939. 1. 29. 오전동 211-3)

## 5. 왕곡동(旺谷洞)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왕륜면 곡사동, 통산동이었다가, 1914년 부령 제111호에 따라 수원군 의왕면 왕곡리로 되었다. 그 후 1936년 10월 1일 일왕면 왕곡리로 되었고, 1949년 8월 15일 화성군 일왕면 왕곡리로, 다시 1963년 1월 1일 시흥군 의왕면 왕곡리로, 이어 1980년 12월 1일 의왕읍 왕곡리로 되었다가, 1989년 1월 1일 의왕시 왕곡동으로 개칭되었다.

이 마을의 유래는 내왕동(內旺洞)의 '왕(旺)'자와 곡사동(谷沙洞)의 '곡(谷)'자를 따서 왕곡동이라 하였다. 왕곡동에는 골사그네, 왕림, 통미동, 홍치골 등의 자연취락이 있다.

### □ 골사그네(谷沙洞)

지시대 고개 아래에 자리잡은 마을로 삼태기처럼 오목한 곳에 있다. 이곳은 산세가 험악하고 산림이 우거져 맹수의 피해가 극심해 사람들이 안주하기를 꺼려했다고 한다.

전주 이씨, 마씨, 경주 배씨 등이 처음으로 세거한 이 마을을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왕륜면 곡사동이라 불렀다. 1978년 취락구조 개선 사업으로 마을이 새롭게 단장되었으며,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에는 육림의 날 및 식목일 행사를 이곳에서 거행하기도 하였다.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10월에 길일을 택해서 지시대 고개 마루 동편 서낭당에서 마을의 안정을 기원하는 당제를 지내 왔다. 그러다가 1970년대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서낭당이 철거되면서부터 중단되고 있다. 김홍성(1920. 4. 2. 왕곡동 499)

### □ 왕림(旺臨)

의왕지서 옆 하천을 따라 동쪽으로 백운산 아래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곳은 조선조 연산군 때 정주목사를 역임하고 청평군에 책봉된 김우증이 중종반정에 공을 세워 동쪽으로는 백운산, 서쪽으로는 오봉산, 남쪽으로는 지시대, 북쪽으로는 모락산에 이르기까지 사방 십리를 사패지(賜牌地)로 받아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이래, 그의 후손(청풍 김씨)들이 세거하기 시작하면서 취락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구전에 따르면 조선시대 효도대왕으로 그 이름이 높던 정조대왕이 수원의 용릉(사도세자의 묘소)을 참배하고 환궁하는 길에 이곳에 친림(親臨)했다고 하여 '旺臨'이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본래는 왕림(王臨)이라고 해야 옳으나 사가(私家)에서는 임금 '왕'자를 사용할 수가 없어 임금 왕(王)자 앞에 날 일(日)자를 쓴 것이라고 한다.

왕림은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마을 위 동쪽 지역은 청풍 김씨의 사당이 있으므로 '별묘(別廟)' 또는 '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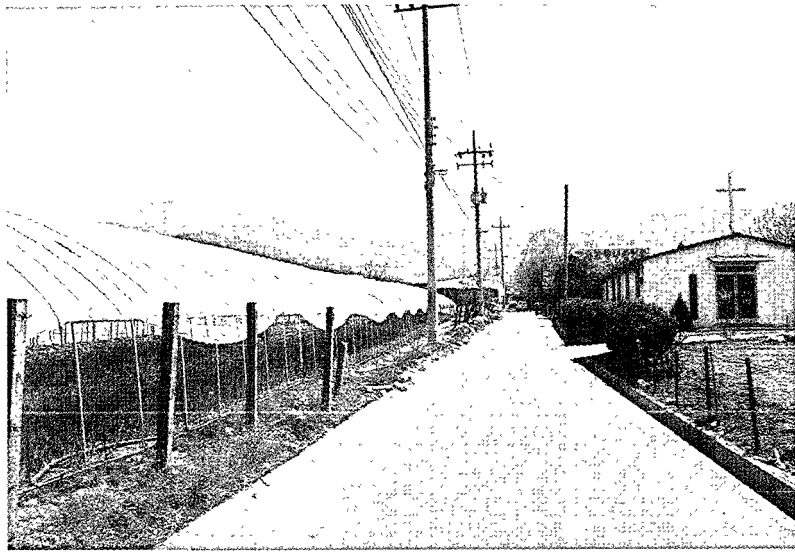


사진7. 왕림마을 전경

밭'이라 부르고, 마을회관 주변은 '향촌' 또는 '아랫마을'이라 부른다.

별묘 아래는 향촌과 별묘 사이에 자리잡고 있어 '샌말(間村)'이라 칭하고, 서남쪽 지역은 김치후(1691~1742, 경상도 관찰사 역임)의 묘가 능처럼 크므로 '새능말'이라 불리우며, 남쪽지역은 그늘진 곳에 있는 마을이므로 '웅단말(陰堂村)'이라 부른다. 마을 초입은 풍수로 보아 기러기가 앉아 있는 형국이므로 '낙안동(落雁洞)'이라고 부른다.

또 계요병원 앞 개울 건너(남쪽)에 있는 마을은 '죽동(竹洞)', 별묘 남쪽은 '방가시(麥田)', 아랫말 남쪽은 '서당현(書堂峴)'이라 각각 부르고 있다.

마을에서는 통미 주민들과 함께 해마다 음력 10월 초에 길일을 택해서 백운산 아래에 있는 산신당에서 산신제를 지내오고 있다. 김진욱(1909. 12. 14. 왕곡동 179)

#### □ 통미동(通山洞)

왕림과 풀사그네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시대에는 이 마을을 중심으로 중앙을 가로지르는 소로(小路)가 수원과 왕림을 잇고, 동서로 햇골과 고고리를 왕래하는 사통팔달(四通八達)의 중요 지점에 있는 산이라 하여 통산(通山)이라 했다고 한다. 그 후 그 주변에 취락이 생기면서 산명을 취하여 '통미동(通山洞)'이라 부르고 있다.

청풍 김씨가 김해 김씨가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이 마을은 왕림 주민들과 함께 해마다 음력 10월 초에 길일을 택해서 백운산 아래에 있는 산신당에서 마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산신제를 지내오고 있다. 김춘산(1913. 12. 18. 왕곡동 383)

#### □ 홍치골(紅靑洞)

왕림과 오전동 오매기 사이에 있다. 청풍 김씨가 처음으로 터를 잡은 이 마을은 토질이 음지쪽은 푸르고, 양지쪽은 붉은 색을 띠고 있다고 해서 '홍청골'이라 했다고 한다. 그런데 후대에 내려오면서 '홍치골'로 불리우고 있다. 윤필영(1920. 8. 27. 왕곡동 180)

## ○ 덕적골(德石谷)

지시대 고개 동편으로 한국 야쿠르트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곳에 큰 바위가 있어 '덕적골' 또는 '덕석골'이라 부른다. 배수봉(1912. 10. 6. 왕곡동 486)

## ○ 덩박골

시용골 동쪽에 있다. 골짜기가 흡사 들판(가위의 다리)처럼 생겼다. 김춘산(1913. 12. 18. 왕곡동 383)

## ○ 동골

왕립 홍치골 뒤(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조선 중엽 전라감사를 지낸 김징(1623~1676)의 묘를 이곳에 쓸 때 광증을 파고 하관을 하려는데, 별안간 뇌성벽력으로 인해 시신을 잃어버리고 묘자리에는 산사태가 나면서 연못으로 변모되었다. 그러자 인근의 광주, 수원, 과천의 3개 군민을 동원해 참나무를 베어다가 빈묘(虛墓)를 만들었을 당시 인부들이 묘터 옆에서 뒤를 보았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골짜기를 '동골'이라 부르고 있으며 일명 '용난테' 또는 '용난산소'라 부른다고 한다. 흔히 오봉산에 안동 권씨의 묘를 쓴 후 6정승이 배출되었다고 하나 실은 이곳에 김징의 묘를 쓰고 6정승이 배출되었다는 이야기가 청풍 김씨 문중에 가전되고 있다. 김상학(1933. 6. 17. 왕곡동 83)

## ○ 백운사(白雲寺)

왕립 위(동쪽) 백운산 동쪽에 자리잡은 사찰이다. 원래 백운산 동남쪽에 있었으나 고종 31년(1894) 산 불로 소실될 때 史蹟 또한 소실되어 창건연대를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빈터에 몇 개의 주춧돌과 탑의 기단석이 남아 있다. 소실된 이후 고종 32년(1895) 청풍 김씨 문중에서 건평 20평의 암자를 현재의 위치에 다시 세웠다. 그 뒤 1916년 경흔(敬欣) 스님이 중수를 하는 등 그 후에도 여러 스님들의 원력으로 법당과 요사를 신축하고 도량(道場)을 손질하였다(본말사주지회 편, 『용주사본말사지』, 1984). 김상학(1933. 6. 17. 왕곡동 83)

## ○ 분터골

홍치골 서북사이에 위치한다. 이곳은 비가 오면 패이기 때문에 왕립 사람들이 흙을 저다 부어 든었다고 한다. 일명 '부터골' 또는 '부토골'이라 부르기도 한다. 윤필영(1920. 8. 27. 왕곡동 180)

## ○ 샘골(泉谷)

큰 금정골 안에 작은 샘 우물이 있어 '샘골'이라 부르고 있다. 물맛이 좋고 샘이 마르질 않는다. 김흥성(1920. 4. 12. 왕곡동 499)

## ○ 쇠뜨기골

삿갓봉 동쪽으로 쇠뜨기가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쇠뜨기는 속새과에 속하는 다년생의 양치류이다. 들이나 밭에 흔히 나는데, 풀 전체를 이노제로 약용한다.) 윤필영(1920. 8. 27. 왕곡동 180)



○ 시응골

통미 동편으로 시응이 많이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응골'이라 부른다. 김춘산(1913. 12. 18. 왕곡동 383)

○ 안골

왕립 산말 북쪽으로 김유의 묘 서쪽에 있다. 삼태기처럼 오목하게 생긴 골짜기이다. 김상복(1946. 1. 20. 왕곡동 83)

○ 양거목골

지시대 고개 아래 서편에 위치한 골짜기를 말한다. 이곳은 산림이 우거져 낮에도 해를 볼 수 없을 만큼 어두워 '양검은골'이라 했는데, 후대에 내려오면서부터 '양거목골'로 불려지고 있다. 김홍성(1920. 4. 12. 왕곡동 499)

○ 오리들

왕립 정미소 앞(서북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군데군데 웅덩이가 있어 오리가 서식했다고 한다. 바우박이 논, 행성머리 논, 샘백이 논, 깊은 자리 논, 소나무박이 논이 모두 오리들 안에 있다. 정방명(1930. 4. 16. 왕곡동 157-2)

○ 용무골

덤박골 뒤로 골짜기가 용의 모습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김춘산(1913. 12. 18. 왕곡동 383)

○ 응단말 논

왕립 응단말 주변에 있다. 수답(水畓)으로 20마지기 가량 된다. 정방명(1930. 4. 16. 왕곡동 157-2)

○ 작은 금정골(小金井谷)

별묘 청풍군 묘 옆(북쪽)에 있다. 좁고 긴 골짜기로 대부분의 지역이 논이다. 정방명(1930. 4. 16. 왕곡동 157-2)

○ 절골

조선 중엽에 절이 있던 곳으로 중상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윤필영(1920. 8. 27. 왕곡동 180)

○ 절터골

절골 북쪽으로 조선시대 이곳에는 절이 있었는데 빈대 때문에 폐사되었다고 한다. 절의 이름이나 규모 등은 알 수가 없고 다만 깨진 기왓장 등이 출토되고 있을 뿐이다. 윤필영(1920. 8. 27. 왕곡동 180)

○ 중상골

왕림에서 동쪽으로 약 3km 지점에 위치하며 이곳에 중이 살았다고 한다. 윤필영(1920. 8. 27. 왕곡동 180)

## ○ 지지대 고개

왕곡동 골사그내와 수원시 파장동 사이의 고개로 본래의 이름은 '사그내 고개' (沙斤峴)이다. 이 고개는 효도대왕으로 정성이 지극했던 정조가 부왕인 정헌세자의 원침(현릉원) 전배를 마치고 환궁하는 길에 이 고개를 넘으면서 멀리서나마 현릉원이 있는 화산을 바라볼 수 있게 되므로 이곳에 행차를 멈추게 하고 현릉원 쪽을 되돌아보면서 제읍을 마치지 않았고 이곳을 떠나기 아쉬워하였기 때문에 정조의 행차가 느릿느릿하였다 하여 '지지대 고개'라 부르게 되었다. 고개 마루에는 순조 7년(1807) 서영보가 찬(撰)하고 윤사국이 쓴 지지대비(遲遲臺碑)가 있다. 지지대비의 규모는 총고(總高)가 260cm, 신고(身高) 156cm, 폭 56cm, 후(厚) 33cm이다(경기도, 『경기금석대관』, 1982). 김상학(1933. 6. 17. 왕곡동 83)

## ○ 큰금정골(大金井谷)

지지대 고개 서편으로 1970년대 말엽 박정희 대통령이 식목일에 기념식수를 하던 곳이다. 구전에 따르면 아주 오랜 옛날에 이 골짜기의 초입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 우물 속에 황금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김홍성(1920. 4. 12. 왕곡동 499)

## ○ 학다리골

용무골 북쪽으로 골짜기의 모양이 학의 다리처럼 생겼다. 김춘산(1913. 12. 18. 왕곡동 383)

## ○ 협착골

이리골 서쪽으로 골짜기가 좁으므로 '협착골'이라 부른다. 김진교(1911. 6. 24. 왕곡동 152)

## ○ 홍치골(紅靑谷)

왕림과 오전동 오매기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김정(1623~1676, 전라감사를 역임)의 묘가 있는 곳이다. 이곳의 토질이 음지쪽은 푸르고 양지쪽은 붉다. 윤필영(1920. 8. 27. 왕곡동 180)

## ○ 햇골(化鶴谷)

한국야쿠르트 뒤(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곳에서 학이 노닐었다고 하여 화규골이라 했다. 후대에 내려오면서 '햇골'이라 불린다. 김진욱(1909. 12. 14. 왕곡동 179)

## 6. 월암동(月巖洞)

조선 중엽에는 광주군 월곡면의 一里와 二里였으나, 1906년 9월 24일 칙령 제49호 '지방구역 정리전'에 의거 안산군 월곡면 월암리로 되었으며, 1914년 부령 제111호에 따라 수원군 반월면 월암리로 변경되었다.

광복 후 1949년 8월 15일 화성군 반월면 월암리라 했다가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호에 의거 시흥군 의왕읍 월암리로 되었다가, 1989년 1월 1일 의왕시 월암동으로 변경되었다.

이 마을은 조선시대 광주목 월곡면의 '월(月)'자와 마을을 둘러싼 산에 바위가 많아 '암(巖)'자를 따서 월암동이라 하였다고 한다.

월암동에는 건너말, 골쟁말, 당재마을, 도룡마을, 방죽말, 부처마을, 새터말, 옷말, 잔말, 조씨마을, 큰말 등의 자연취락이 있다.

#### □ 건너말

도룡마을 북쪽으로 조씨마을(中村) 건너편에 자리잡고 있어 '건너말'이라 부르고 있다.

건너말은 조선 초기에 남원 양씨가 처음으로 터를 잡은 이래 화성군 봉담면 출신 최이호 씨가 1400년대에 이곳에 이주해 온 후 그의 후손들이 세거해 오면서 취락이 형성되었다.

마을에서는 2년마다 홀수 해인 음력 10월 1일에 당재마을과 옷말 사이에 있는 당집에서 당제를 지내고 있다. 최기석(1913. 2. 7. 월암동 17)

#### □ 골쟁말(谷峴村)

잔말 서쪽에 있으며 삼태기처럼 생긴 골짜기 안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여흥 민씨의 세거지이며 현재도 여흥 민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이원순(1913. 3. 15. 월암동 30)

#### □ 당재마을

옷말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아랫말 뒷 산 정상에 당집이 있어 '당재마을'이라 부른다. 또 옷말 너머에 당집이 있어 일명 '당재넘어'라 칭하기도 한다. 당집은 창녕 조씨와 송씨, 홍씨 등이 조선 중엽에 마을의 안정을 기원하는 당제를 지내기 위해 세웠다고 전해진다.

경주 이씨와 성주 도씨의 오랜 세거지로, 현재는 성주 도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마을에서 2년마다 홀수 해인 음력 10월 1일에 아랫말 뒷 산 정상에 있는 당집에서 당제를 지내고 있다. 이원순(1919. 11. 18. 월암동 33)

#### □ 도룡마을

건너말 남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에는 광주목 월곡면 도룡동이었다.

이 마을은 마을 앞 길의 형세가 풍수로 보아 용의 혈인데, 구전에 따르면 이곳에서 용이 승천했다고 하여 '도룡동(道龍洞)'이라 했다는 것이다. 도룡동은 세종대왕 때 광주 이씨가 처음으로 세거하기 시작했다고 하며, 지금도 광주 이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마을에서는 2년마다 홀수 해인 음력 10월 1일에 당재마을과 옷말사이에 있는 당집에서 당제를 지내고 있다. 최기석(1913. 2. 7. 월암동 174)

#### □ 방죽말

조씨마을 남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 말엽에 이곳에 방죽이 생긴 후 취락이 형성되었으므로 '방죽말'이라 부르고 있다.

김해 김씨가 처음으로 세거한 방죽말은 2년마다 홀수 해에 당재마을과 옷말사이에 있는 당집에서 음력 10월 1일에 당제를 지내고 있다. 최구식(1922. 4. 17. 월암동 산26)

#### □ 부처마을(佛井)

새텃말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 중엽에 이 마을 동남쪽 산 중턱에 있는 옷우물 위에 절이 있었다 하여 '부처마을'이라 부르고 있다.

구한말에 성주 이씨가 처음으로 자리잡은 부처마을은 지금도 성주 이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마을에서는 2년마다 홀수 해인 음력 10월 1일에 당재마을과 옷말 사이에 있는 당집에서 당제를 지내오고 있다. 이왕순(1919. 11. 18. 월암동 330)

#### □ 새텃말

이 마을은 본래 조씨가 부자로 살다가 망한 곳이라 하여 '망석골'이라 불렀다가, 그 후 조선 말엽 성주 도씨가 새로 터를 잡고 살아 '새텃말'이라 부르고 있다. 지금도 성주 도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당재마을 서남쪽에 위치해 있는 마을 남쪽지역을 '아랫말'이라 부르고 북쪽 지역을 '옷말'이라 칭하고 있는데, 마을에서는 2년마다 홀수 해인 음력 10월 1일에 당재마을과 옷말 사이에 있는 당집에서 당제를 지내오고 있다. 도필규(1927. 5. 27. 월암동 352)

#### □ 옷말(上村, 진태골)

조씨마을 위(북쪽)에 자리잡은 마을로 높은 곳에 있는 마을이므로 '옷말'이라 칭하였다. 또 조선시대 어느 전란 때 군인들이 이곳에서 진을 쳤다고 하여 일명 '진태골'이라 부르기도 한다. 성주 도씨가 처음으로 세거했으며 지금도 성주 도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마을에서는 2년마다 홀수 해인 당재마을과 옷말 사이에 있는 당집에서 음력 10월 1일에 당제를 지내오고 있다. 도종약(1931. 8. 28. 월암동 95)

#### □詹말(峴村)

큰말 서남쪽에 자리잡은 마을로 고개 너머에 있는 마을이므로 '詹말'이라 부르고 있으며 동남쪽에 있는 마을은 '왕소나무박이마을'이라 칭한다. 이곳詹말은 광주 이씨가 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이원순(1913. 3. 5. 월암동 301)

#### □ 조씨마을(曹村, 中村)

이 마을은 조선 중엽에 창녕 조씨가 처음으로 자리잡은 곳이라 하여 '조씨마을'이라 부르고 있으며 지금도 창녕 조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조씨마을은 옷말과 방죽말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일명 '중촌'이라 칭하기도 한다. 마을에서는 2년마다 홀수 해인 음력 10월 1일에 당재마을과 옷말 사이에 있는 당집에서 당제를 지내오고 있다. 조경환(1936. 11. 8 월암동 206)

#### □ 큰말(大村)

부처마을 남쪽 경부철도 연변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조선시대 성주 이씨 후손 중에 이참봉이란 분이 큰 부자로 살아 '큰말(大村)'이라 칭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에는(1906년 이전) 광주군 월곡면 대대리라

불렀다. 성주 이씨를 비롯하여 광주 이씨, 용씨 등이 세거했으며, 현재는 성주 이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큰말은 마을의 동남쪽 지역을 '웃말', 서북쪽지역을 '아랫말' 이라 각각 칭하고 있다. 이원순(1913. 3. 15. 월암동 301)

### ○ 가골(家谷)

장승박이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 큰 기와집이 있었다 하여 '가골' 이라 부르고 있기는 하나, 일제 말엽에 폐동되었다. 이 안에 호랑이 무덤이 있다. 최기석(1913. 2. 7. 월암동 174)

### ○ 강나무골

동쪽 건너말 동북쪽으로 서낭골 아래(서쪽)에 있다. 구전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 왜병이 이곳에 와서 아이들을 보고 "어른들이 어디로 피난갔느냐"고 물으니 아이들이 "강남으로 피난갔다"고 얘기했다 한다. 현재는 농경지이다. 최기석(1913. 2. 7. 월암동 174)

### ○ 明堂뿌리

선사골 서남쪽에 있는 산 모퉁이로 현재 성주 도씨의 선대 묘가 있는 곳이 천하명당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당자리는 아직 찾지를 못했다고 한다. 최기석(1913. 2. 7. 월암동 174)

### ○ 방죽말들

새말 앞(동쪽)에 있는 들로 이곳에 방죽이 있었다 하여 '방죽말들' 이라 칭하고 있다. 최기석(1913. 2. 7. 월암동 174)

### ○ 부처말들(佛井谷)

부처마을과 웃우물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현재는 농경지이다. 이원순(1919. 11. 18. 월암동 330)

### ○ 삼박골

강나무골 너머(북쪽)에 있다. 현재 농경지로 되어 있다. 최기석(1913. 2. 7. 월암동 174)

### ○ 선사골(松谷)

삼박골 북쪽으로 가골 위(동북쪽)에 있다. 소나무가 많아 '송골' 이라 부르기도 한다. 현재는 농경지이다. 도종현(1932. 1. 27. 월암동 164)

### ○ 아랫말고개

도룡마을과 큰말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최기석(1913. 2. 7. 월암동 174)

### ○ 안터

방죽말 동쪽으로 수원시 율전동 웃밤밭과 경계가 되는 곳을 말한다. 구전에 따르면 조선 중엽에 큰 부자가 살았는데, 결인, 강도 등이 들끓어 살 수가 없자 어느 도사에게 물으니 마을 앞 노적봉 쪽으로 직선길을

내면 무사하다고 알려주자 이에 그대로 했더니 얼마 안가 부자는 망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고 한다. 도종현(1932. 1. 27. 월암동 164)

#### ○ 용아가리들

용아가리 서쪽에 있다. 용아가리와 왕송저수지 사이가 된다. 이왕순(1919. 11. 18. 월암동 330)

#### ○ 월암동 회화나무

건너말에 있는 나무(월암동 176). 둘레 3.5m, 높이 12m, 수령 약 500년으로 경기도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나무가 3층 가지로 되어 있는데, 밑가지에서 먼저 피고 윗 가지에서 늦게 피면 흉년이 들고, 3층 가지가 고루 피면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다. 최기석(1913. 2. 7. 월암동 174)

#### ○ 은골

웃우물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이왕순(1919. 11. 18. 월암동 330)

#### ○ 이리실들

건너말 남쪽에 있는 들로 현재 농경지로 되어 있다. 최기석(1913. 2. 7. 월암동 174)

#### ○ 장고개(場峴)

철도전문대학과 당재넘어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조선시대에 월암동 사람들이 수원장 보러 갈 때 다니던 고개이다. 고개가 높아 고개를 넘으려면 숨이 차 험레벌떡 거린다고 해서 일명 '벌고개'라 부르기도 하고 월암동에 있는 고개이므로 '월암동 고개'라 칭하기도 한다. 이왕순(1919. 11. 18. 월암동 330)

#### ○ 장승박이

도룡마을과 조씨마을 및 건너말 사이 들판 가운데 장승이 있으므로 이곳을 '장승박이'라 칭하고 있는데 현재도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의 두 장승이 있다. 최기석(1913. 2. 7. 월암동 174)

#### ○ 큰애봉

도룡마을 건너말 뒤(동쪽)에 있는 산으로, 수원시 울전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큰애봉이란 인근에서 제일 큰 봉우리란 뜻이다. 최기석(1913. 2. 7. 월암동 174)

### 7. 이등(二洞)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왕릉면의 창촌(倉村), 징계리(澄溪里), 신촌(新村), 교동(校洞), 동동(桐洞), 묘동(墓洞), 궁말(宮村), 신기촌(新基村)이었다가 1914년 부령 제111호에 따라 수원군 의왕면 이리로 되었으며, 1936년 10월 1일 일왕면 이리로 되었다. 광복 이후 1949년 8월 15일 화성군 일왕면 이리로 개칭되었고, 1963년 1월 1일 시흥군 의왕면 이리로, 이어 1980년 12월 1일 시흥군 의왕읍 이리로 되었다가

1989년 1월 1일 의왕시 이동으로 변경되었다.

이동에는 징계골 뒤(동남쪽)에 있었던 덕성봉(德成奉, 1979년 서울남부화물기지 건설로 없어짐)에서 발원하여 상학골 옷말을 거쳐, 아랫말, 창말을 지나 왕송저수지에 합류되었던 용정개울에 어류가 많아 이곳 주민들이 천렵(川獵)을 했으므로 '어엽리(漁獵里)'라 불렸다.

이동에는 가나무골, 구래, 궁말, 금천말, 상학골, 새터마을, 징계골, 창말 등의 자연취락이 있다.

#### □ 가나무골(桐木洞)

오봉 전철역 앞(동쪽)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조선시대에는 강의 주산지였을 만큼 집집마다 감나무가 있어 가지마다 많은 감이 열렸다.

가나무골은 1700년대에 여주 이씨 후손 중에 이봉조란 선비가 처음으로 정착한 곳인데, 그 후 1979년 서울 남부화물기지 건설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이 철거되었고 현재는 단 1가구만 남아 있다. 이용구(1916. 1. 15. 이동 416)

#### □ 구래

궁말과 군포시 당정동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화성군 남양·서신에서 한양을 가자면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할 만큼 교통의 요충지여서 행려자(行旅者)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주막이 번창하였다.

그 후 노정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자 주막은 광복을 전후로 해서 자취를 감추었고 민가라고는 2가구 밖에 없다. 이용구(1916. 1. 15. 이동 416)

#### □ 궁말(宮村)

전주 이씨 덕흥대군과의 종가를 도정궁(都正宮)이라 부르고 있는데, 덕흥대원군 후손 중에 이해승이란 분이 조선 말엽에 이곳에 처음으로 터를 잡고 살았다 하여 도정궁의 '궁(宮)'자를 따서 '궁말(宮村)'이라 부르고 있다.

새터마을 서쪽에 자리잡은 이 마을은 소설가 이무영(1908~1960)씨가 1939년 동아일보사를 사직하고 그의 절친한 친구 이흠이 살고 있던 이곳으로 이주한 후 10여년 간 농민들과 생활하면서 농경의 현장에 깊이 참여하여 그 실질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쓴, 『궁촌기(宮村記)』를 비롯, 『제1과 제1장』, 『흠의 노예』 등의 농민소설을 집필했던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이용구(1916. 1. 15. 이동 416)

#### □ 금천말(錦川洞)

새터마을 남쪽에 있다. 이 마을은 부곡역 서편에 철도청 주차장(操車場)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곳에 있던 53가구 중 50가구를 당시 시흥군 주선으로 현재의 위치에 집단 이주하여 취락이 형성되었다.

금천말(錦川洞)이란 마을 명칭은 삼동 아랫 장안말 출신 신중균 씨가 이 마을 동남쪽으로 흐르는 개천이 맑은 비단 물결 같으므로 그 인근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금천말(錦川洞)'이라고 작명한 것이다. 윤갑중(1938. 1. 22. 이동 209-1)

#### □ 상학골(校洞)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왕륜면 교동이라 불렀던 마을로 징계동골 북쪽에 있다. 이곳은 이 마을 동쪽에 조

선시대 향교가 있었으므로 '상학골(校洞)'이라 부르고 있다. 상학골은 함양 박씨와 동래 정씨의 오랜 세거지로 마을 북쪽 지역은 '양지밭', 서쪽 지역은 '아랫밭'이라 각각 부르고 있다.

마을에서는 1979년까지만 해도 덕성봉 및 꽃동네에 있던 당집에서 해마다 음력 10월 2일에 산신제를 지냈다. 박성희(1920. 11. 1. 이동 54)

#### □ 새터마을(新基村)

묘막밭 서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 마을은 조선 말엽에 청주 한씨가 처음으로 터를 잡은 곳으로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왕륜면 신기촌이라 불렀다.

1979년 서울남부화물기지 건설로 이곳 일대가 구획정리되었다. 한성수(1927. 1. 27. 이동 31)

#### □ 징계골

고천동 고우물 남쪽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이 마을 뒤에 있는 산에서 맑은 물이 계곡을 따라 마을 앞으로 흐른다고 하여 '징계골'이라 하였다. 조선 말엽에 함양 박씨가 처음으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취락이 형성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왕륜면 징계리라 불렀다. 박동범(1909. 4. 15. 이동 67)

#### □ 창말(倉村)

금천말 옆(동쪽)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다. 이곳은 조선중엽에 창고가 있었다 하여 '창말'이라 부르고 있는데, 조선 숙종 때 이조참판을 역임한 한성우(1633~1710)가 낙향하여 처음 세거한 곳이다. 한성우는 송시열의 문하로 청령 정직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이다. 그가 살던 집 주위를 인줄로 쳐 놓아 일반 사람들은 접근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창말에는 앞서 말한 한성우의 묘를 비롯하여 한장석(1832~1894, 대제학을 역임), 한필교(공조참판을 역임), 한원이(태인현감을 역임), 한창수(이왕직장감을 역임) 등의 묘소가 있으며 마을에서는 1979년까지만 해도 덕성봉 및 꽃동네에 있는 당집에서 해마다 음력 10월 2일에 산신제를 지냈다. 한성수(1927. 1. 27. 이동 318)

#### ○ 덕성봉 터(德聖峯址)

징계골과 수원시 이목동의 경계를 이루고 있던 산으로, 이 1동 주민들이 이산 산기슭에서 매년 음력 10월 2일에 산신제를 지냈다. 그러나 1979년 서울남부화물기지 건설로 없어졌다. 한성수(1927. 1. 27. 이동 318)

#### ○ 묘막밭터(墓幕村址)

오봉역 서쪽에 있었던 마을로, 조선조 고종 때 영의정을 역임한 김병학(1821~1879)의 묘막(墓幕, 99칸)이 있었으므로 그 인근을 '묘막밭'이라 불렀는데, 1979년 서울남부화물기지 건설로 폐동되었다. 이용구(1919. 1. 15. 이동 416)

#### ○ 헌터골

강사간들 안에 있는 골짜기로, 조선시대에는 이곳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헌터골'이라 부른다. 한성수



(1927. 1. 27. 이동 318)

## 8. 청계동(淸溪洞)

『여지도서』의 광주 의곡면은 1리와 2리로 구분되어 있고 더 이상 세분된 고을 명이 나타나지 않으나 그 후 광주 의곡면은 손동, 갈산동, 포우동, 청계동, 학현, 어일리로 되어 있어 '청계동'이 등장한다.

이 청계는 아마도 현재 청계산을 옛날에는 『동국여지승람』이나 『남한지』의 문헌이나 청계사사적비의 기록에서 보듯 '일명 청계산'이라 하여 과천 관악산을 '우백호'라 칭한다면 '우청룡산'에 해당하므로 이 청룡산 계곡을 따라 이루어진 마을이 靑溪 또는 淸溪가 된 것으로 사료된다.

### □ 독정(獨亭)

토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인동 장씨의 오랜 세거지이다.

독정의 유래는 조선시대에 이곳은 민가라고는 없고 오직 정자만이 있어 인근의 사람들이 '독정(獨亭)'이라 부른데서 연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귀영(1922. 3. 15. 청계동 285)

### □ 상직막(上直幕)

청계1동 마을회관 주변에 있는 마을이다. 1972년 마을회관이 건립되면서 민가가 늘기 시작하였다. 전주 이씨 덕흥대원군파 후손 중에 진산군이 이곳에 막을 짓고 살았으므로 '상직막'이라 부르고 있다.

### □ 옥박골

'옥박골'은 한직골에서 청계사로 가는 초입길 왼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마을 이름이다.

『始興郡誌』 下(p. 986) 地名由來 資料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이곳에 죄인을 가두는 옥(獄)이 있었으므로 '옥박골'이라 했는데, 그 후 옥이 철거되면서 그 주변 일대를 '옥터밭'이라 부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 원터(院址)

하우고개 밑에 있는 마을로, 성남시 운중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곳은 광주, 인덕원, 과천을 잇는 동양원(東陽院)이란 역이 청계동 188번지에 있었다 하여 처음에는 '역원터'라 했다가 일제 초부터 '원터'라 부르고 있다.

이 마을은 1880년대에 하우현 성당이 생기면서 민가가 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의 주민 대다수가 천주 교인이다.

경주 김씨와 밀양 박씨 등이 오래전부터 세거해 왔다. 박재화(1916. 4. 15. 청계동 186)

### □ 장자터

원터와 토골 사이에 위치해 있다. 조선시대에 큰 부자가 살았던 곳이라 하여 '장자터'라 부르고 있다고 한다. 전주 이씨의 오랜 세거지로 이곳에 명륜보육원이 있다. 박재화(1916. 4. 15. 청계동 186)

## □ 점말(店村)

상청계 동쪽 끝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 말엽에 이곳에서 그릇을 구었다고 한다. 이철영(1924. 2. 5. 청계동 621)

## □ 청계골(淸溪洞)

이 마을은 조선 태조 이성계와 친분이 두터웠던 박순(? ~ 1402, 음성 박씨로 상호군을 역임)의 큰 아들 박소(좌승지를 역임)의 묘를 이곳에 쓴 후 그의 후손들이 묘하에 거주하면서부터 취락이 형성된 곳이다.

그 후 전주 이씨 익양군의 넷째 아들인 단천군(1520~1586)의 묘를 상청계능마루에 쓴 후 그의 후손들이 세거하면서 마을이 더욱 번창하기 시작하였다.

## □ 한직골

일석 선생께서 들려주신 바에 의하면 '한직골'은 '한적골'이 변한 이름이라 하였다. 이곳이 옛날에는 마을이 없었던 곳으로 인덕원에서 광주쪽으로 가는 길목으로 한적한 곳이라는 의미로 '한적골'이었는데, 발음의 편의상 '한직골'로 부른 것이다.

현재 청계동 사무소가 위치한 곳의 동남쪽 부근 마을이 바로 이 마을로 이곳에 전해지는 지명유래는 이곳을 예로부터 지대가 높아 논은 별로 없고, 들판이 沙質土이므로 어떤 곡식도 잘되지 않고 가물면 이내 작물이 부딪쳐서 시들고 말라죽어 '한재골(旱災洞)'이라 불리어 왔는데 현재는 '한직골'로 통칭한다고 밝혀 있다.

일설에는 이 마을 동쪽에 있는 산줄기가 풍수로 보아 여인이 베를 짜는 형국이어서 마을이름을 '환직골'이라 했다는 것이며, 또, '한직골(漢直洞)'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일제 때 일인들이 부르던 지명이라고 한다. 음성 박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윤석원(1930. 1. 5. 청계동 823)

## ○ 검청골

옥박골 서쪽 산등성이 너머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의 흙이 유난히 검고, 소나무는 푸르다 하여 '검청골'이라 부르고 있다. 이철영(1924. 2. 5. 청계동 621)

## ○ 광골(廣谷)

국은봉 아래(청계사 방향으로)에 있다. 골자기가 크고 넓어 '광골'이라 부른다. 이철영(1924. 2. 5. 청계동 621)

## ○ 노은골(老隱谷)

마을회관(청계1통) 뒤 터골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이곳은 조선 초기에 음성 박씨의 후손인 박연(진안현감을 역임)이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하여 은둔생활을 하던 곳이기도 하다. 그의 호가 노은(老隱)이므로 그의 아호를 따서 '노은골(老隱谷)'이라 부르고 있다. 이철영(1924. 2. 5. 청계동 621)

## ○ 덩박골

탕골 밑(서쪽)에 있다. 골짜기의 모습이 마치 덩박이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덩박이란 옷감이나 종이 등을 벨 때 사용하는 가위의 다리를 말한다) 이철영(1924. 2. 5. 청계동 621)

○ 독가마골

원통 절터 밑(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조선시대에는 이곳에서 간장이나 술 또는 김치 같은 것을 담가 두는데 사용하는 독을 구웠다고 한다. 이철영(1924. 2. 5. 청계동 621)

○ 동편골(東便谷)

용갱이골 동쪽에 위치해 있는 골짜기이므로 '동편골' 이라 부르고 있다. 박재화(1916. 4. 15. 청계동 186)

○ 때골

원터와 안양시 공원묘지 사이 양지바른 곳에 있는 산골로, 골짜기가 넓고 짧다. 박재화(1916. 4. 15. 청계동 186)

○ 망경대

청계산의 주봉으로 해발 618m에 이른다. 이곳에 석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망경대' 라 부른다고 한다. 본래의 이름은 '만경(萬景)' 이라 하여 이곳에 이르면 눈 아래 만가지 경치가 전개된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었으나 고려말엽을 지나 이씨 왕조가 들어서자 거지같은 차림에 초라한 선비가 만경대에 오른 후로는 만경(萬景)이 망경(望景)으로 바뀌었으니 그가 바로 고려 말엽의 충신 조건이었다.

조건은 조선의 개국공신 조준의 아우로 이색, 길재, 원천석 등과 함께 고려를 빛낸 명유이자 충신이었다. 그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되자 황급히 두류산으로 은거하였다. 태조가 호조전서의 교지와 개국공신 2등으로 평양군에 봉한다는 교서를 내렸으나 이를 거절하고 “송산에서 고사리를 캐먹는 것이 소원이요, 성인(임금)의 신하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 하여 이름을 조운에서 조건으로, 자를 종견(從犬)으로 고쳤다. 나라가 망하였는데 구차하게 목숨만 살아 있으니 개와 같다 하여 이름을 견(狔)으로 고치고 또한 개도 주인을 연모하고 의리를 쫓는다는 뜻에서 자를 종견(從犬)으로 고친 것이다. 그 후 그는 두류산에서 청계산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곳은 증조부 조인규가 중창한 청계사가 있고 영정을 모신 영당이 있는 곳이기도 한다. 이 청계산 산정에 올라 송경을 보고 통곡하므로 그 후부터 사람들이 만경대를 '망경대(望景臺)' 라 불렀던 것이다.

조건이 청계산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성계는 친히(일설에는 신하를 시켰다고 함) 청계산을 찾아 그에게 조선왕조에 들어와 함께 일하도록 권유했으나 멀리 송경만 바라볼 뿐 아무말도 하지 않자 조건의 마음이 금석(金石)같음을 간파한 이성계는 그가 올던 자리에 초막을 지어 주었으나 이를 마다한 조건은 곧 청계산을 떠났다고 하며, 바로 이 초막이 있었던 자리가 오늘의 '망경대' 이다(시흥군, 『시흥의 전통문화』, 1982 ; 경기도, 『경기도지』 1956). 이철영(1924. 2. 5. 청계동 621)

○ 분두골

덤바위골 밑(서쪽)에 산소가 많아 '분두골' 이라 부른다고 한다. 이철영(1924. 2. 5. 청계동 621)

○ 불당골(佛堂谷)

상청계 앞(남쪽)에 조선시대 절이 있었다 하여 이곳을 '불당골' 이라 부른다고 한다. 이철영(1924. 2. 5. 청계동 621)

## ○ 사람절터

안골 서남쪽에 조선시대에 사찰이 있었다가 폐사되자 어떤 사람이 그 절터에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곳을 사람절터라 지칭하였다 하며, 일명 '물방아골' 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철영(1924. 2. 5. 청계동 621)

## ○ 삼박골(麻田谷)

안양시 공원묘지 남쪽으로 조선시대에 이곳에 삼(麻)을 심었다 하여 '삼밭골(麻田谷)' 이라 했다고 한다. 후대에 내려오면서 '삼박골' 로 통칭되고 있다. 이철영(1924. 2. 5. 청계동 621)

## ○ 서당재

하우현 성당 뒤(서쪽)에 있다. 이곳 산 중턱에 서당이 있었다고 하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다. 박재화(1916. 4. 15. 청계동 186)

## ○ 서리골

국은봉 밑(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음지여서 서리가 일찍 내린다. 이철영(1924. 2. 5. 청계동 621)

## ○ 안골

국은봉과 청계사 중간지점으로 청계사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철영(1924. 2. 5. 청계동 621)

## ○ 알바위

하우현 성당 서쪽에 있는 바위로 가운데 부분이 계란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박재화(1916. 4. 15. 청계동 186)

## ○ 용갱이골(龍光谷)

안양시 공원묘지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구전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에 호래미골 밑 원통절터에 있는 바위에서 어느 스님이 독경을 하자 별안간 바위에서 흑이 나왔다고 한다. 그 후 어느 날 소나기가 쏟아지자 흑이 터지면서 금송아지 두 마리가 나와 한 마리는 청계산 부근으로 가더니 없어지고, 다른 한 마리는 다른 골짜기에 이르자 용으로 변하더니 광채를 내며 승천했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골짜기를 용이 광채를 낸 곳이라 하여 '용광(龍光)이골' 이라 했는데, 시대가 변천하면서 '용갱이골(龍光谷)' 로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이곳에서 백자를 굽기도 하였다고 한다. 윤석원(1929. 1. 5. 청계동 82)

## ○ 원통절터

청계사는 본래 호래미골 밑에 있었다고 한다. 이곳은 천하 명당자리인데 원인 모를 불이 나 현재의 자리로 청계사를 옮기자 스님들이 원통하게 여겼다고 한다. 현재도 절터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이철영(1924. 2. 5. 청계동 621)

○ 인동골들

검청골 밑으로 하청계와 중청계 사이에 있다. 마을 인동(隣洞) 골짜기에 있는 들이므로 '인동골들' 이라 부른다고 한다. 이철영(1924. 2. 5. 청계동 621)

○ 작은골

삼박골 밑(서쪽)에 있으며 골짜기가 좁고 짧다. 박재화(1916. 4. 15. 청계동 186)

○ 장승박이

청계사 입구 길 양편에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의 두 장승이 있었으나 일제 중엽에 없어졌다. 이철영(1924. 2. 5. 청계동 621)

○ 진골(陳谷)

하우고개 남쪽으로 삼박골을 칭한다. 조선시대에 전란이 일어나자 군인들이 이곳에 陳을 치고 있었다 한다. 박재화(1916. 4. 15. 청계동 186)

○ 청계사(淸溪寺)

청계산 태봉 기슭에 자리한 사찰이다. 청계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어 고려 충렬왕 10년(1284) 정숙공 조인규의 돈독한 불심에 의해 백여 승도가 머물도록 크게 중창하고 금서로 범화경을 새겨 보존하였던 곳이다. 조선 중종 때는 도성내 전 사찰 폐사시 선종의 총 본찰로 각광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광해군에 의해 전답과 임야가 전부 압수되었으며, 또 임진왜란 때에 완전 소실되어 황량한 벌판으로 남게 되었다. 그 후 백여 년 뒤에 지금의 극락보전과 선방을 중건하고 사찰 면모를 갖추었으나 일제 때 조선 사찰령에 의해 다시 폐사 당하였다. 광복 이후 역대 주지들의 원력으로 중건 보수되어 도심을 벗어난 조용한 기도 도량으로서 역사의 고찰로 길이 남아 있을 것이다. 문화재 자료 제6호로 지정 되었으며 경내의 동종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6호로 지정되었다. 복기세(1951. 8. 21. 청계동 산11)

○ 청계산(淸溪山)

과천에서 동남쪽으로 약 5km, 안양에서 동쪽으로 12km, 서울에서는 18km의 지점에 위치한다. 이곳 청계산은 전설에 따르면 푸른 용이 산허리를 뚫고 나와 흰 구름을 헤치며 하늘로 올라갔다고 일명 '청룡산(靑龍山)' 이라 부른다고도 한다. 옛 사람들은 청계산을 '청룡산', 이와 함께 마주 보이는 관악산을 '백호산(白虎山)' 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산세를 가름하는 기준의 하나가 좌청룡우백호의 형상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지만 청계산과 관악산은 그 같은 지형적 위치 때문에 예부터 명산이라 불려 왔던 것이다. 청계산의 주봉은 망경대(望景臺)로 해발 618m이고, 두 번째 봉우리는 국은봉(國恩峯)으로 해발538m이다. 산중에는 통일신라시대 때 창건한 청계사가 있다. 복기세(1951. 8. 21. 청계동 11)

○ 탕골(胎谷)

둔가마골 밑(서쪽) 서편을 말한다. 이 골짜기 뒤 산봉에다 조선시대 때 어느 왕자의 태(胎)를 묻었다고 한다. 이곳에 전주 이씨 익양군의 손자 순성군의 묘가 있다. 이철영(1924. 2. 5. 청계동 621)



사진8. 국은봉 전경

○ 하우고개

청계동 원터 마을과 성남시 운중동 사이에 있는 큰 고개를 말한다. '하오개' 는 이 고개가 '학고개' 였으나 '학고개 > 하오개 > 하우개' 로 음운변천에 따라 '하오개' 또는 '하우개' 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성당이 있는 마을(청계3동)을 흔히 '하우개' 마을로 지칭하기도 한다.

○ 호래미터골

조선시대에 어느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으로 청계사 아래(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철영(1924. 2. 5. 청계동 621)

○ 횃골(灰谷)

안양시 공원묘지가 자리잡고 있는 곳을 말한다. 이곳의 흙 색깔이 장례 등에 쓰는 회(灰)성분이기 때문에 '횃골' 이라 부르고 있다. 공원묘지 인근은 골짜기가 크므로 '큰횃골' 이라 부르고 큰 횃골 너머(동쪽)는 골짜기가 작으므로 '작은횃골' 이라 부르고 있다. 박재화(1916. 4. 15. 청계동 186)

**9. 초평동(草坪洞)**

조선 중엽에는 광주목 월곡면의 상초평(上草坪)과 하초평(下草坪)의 여러 지역이 1906년 9월 24일 칙령 제49호 '지방구역 정리 건' 에 의거 안산군 월곡면 초평리로 되었다. 그 후 1914년 부령 제111호에 따라 수원군 반월면 초평리로 개칭되었다.

광복후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1호에 따라 화성군 반월면 초평리라 했다가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거 시흥군 의왕읍 초평리로 되었다. 그후 1989년 1월 1일 의왕시 초평동으로 변경되었다.

이 마을은 본래 넓은 벌판에 초목이 우거졌던 곳으로, 조선 초기에 민가가 생기면서 벌판에 초목으로 둘러싸인 취락이란 뜻으로 '초평동'이라 불렀다고 한다. 초평동에는 기와집말, 비탄말, 새말, 샛터말, 소수골, 웃말, 음나무재, 중간말의 자연취락이 있다.

#### □ 기와집말(瓦村)

웃말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 기와로 지은 묘막이 처음으로 들어선 후 취락이 형성되었으므로 '기와집말'이라 부르고 있다. 이곳에는 전주 이씨 임영대군과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 흥봉기(1919. 5. 2. 초평동 247-2)

#### □ 비탄말

기와집말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산비탈에 자리잡은 마을이므로 '비탄말'이라 부르고 있다. 한명수(1914. 9. 28. 초평동 227)

#### □ 새말

일제 때 이순복 씨와 임복홍 씨가 처음으로 터를 잡고 산 마을이다. 군포시 부곡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한명수(1914. 9. 28. 초평동 227)

#### □ 샛터말

조선 말엽에 생긴 마을로 중간말 아래(서남쪽)에 위치해 있다. 흥봉기(1918. 5. 2. 초평동 24)

#### □ 소수골(小水谷)

중간말 동쪽에 위치해 있는 마을로 높은 지대에 위치한 마을이어서 우물을 깊게 파도 수량이 적게 나오므로 '소수골(小水谷)'이라 부른다고 한다. 한명수(1914. 9. 28. 초평동 227)

#### □ 웃말(上里)

초평동의 가장 위에 자리잡은 마을로 풍양 조씨가 처음으로 세거한 마을이다. 새말 서편에 있다. 흥봉기(1918. 5. 2. 초평동 247-2)

#### □ 음나무재

조선시대에는 음나무재, 저넘언말, 가운데말을 일컬어 '아랫새우대'(下草坪)라 했는데, 현재는 '아랫말'로 통칭하고 있다.

이 마을은 조선 초기 『훈민정음』 창제에 공이 큰 정인지의 아들 정현조(세조의 딸 의숙공주와 결혼, 하성 부원군에 봉해 짐)의 묘를 이곳에 쓴 후 그의 후손인 하동 정씨가 묘하에 세거하면서 취락이 형성되었다.

웃말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큰 음나무가 있었다 하여 '음나무재'라 부른다. 흥봉기(1918. 5. 2. 초평동 2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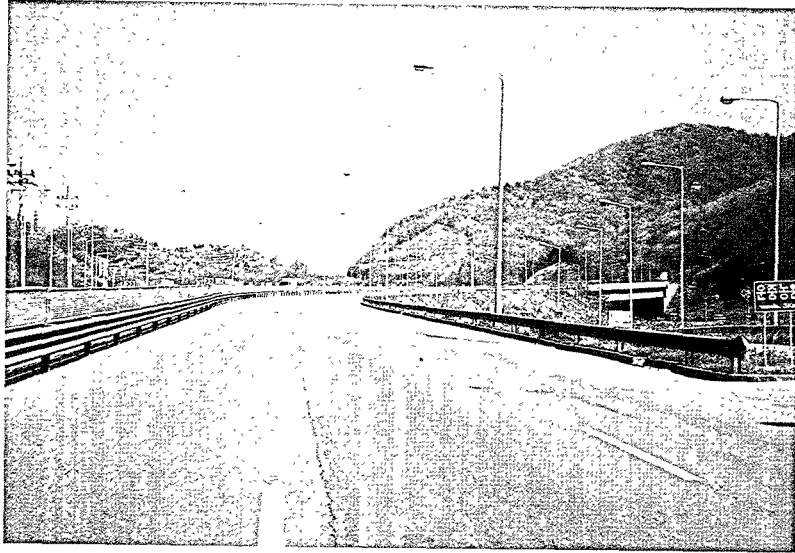


사진9. 하우현고개

#### □ 중간말(中間村)

소수골과 천왕골 사이에 위치해 있는 마을로 '중간말'이라 부르고 있다. 청주 한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한명수(1914. 9. 28. 초평동 227)

#### ○ 팽이골

구정골 위(서쪽)에 있다. 골짜기의 형상이 흡사 고양이처럼 생겼다. 한명수(1914. 9. 28. 초평동 227)

#### ○ 구정골

진더리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명수(1914. 9. 28. 초평동 227)

#### ○ 말무덤이(馬墳)

비석거리 앞에 있던 큰 무덤을 말하며, 1948년 왕송저수지가 생기면서 수몰되었다. 홍봉기(1918. 5. 2 초평동 247-2)

#### ○ 밤나무골

조선시대에는 밤의 특산지로 유명했던 마을로 비탄말 동쪽에 있다. 한명수(1914. 9. 28. 초평동 227)

#### ○ 방아다리

구정골과 팽이골 사이에 있는 다리이다. 홍봉기(1918. 5. 2. 초평동 247-2)

#### ○ 뱃길재

기와집말과 화성군 반월면 도마교리(渡馬橋里)사이에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바닷물이 들어와 뱃길이 닿았으므로 '뱃길재'라 부르고 있다. 한명수(1914. 9. 28. 초평동 227)



○ 비석거리(碑石巨里)

아랫말 동쪽에 이르는 길로 조선시대에는 과천과 화성군 남양을 잇는 중요한 교통로였다. 이곳 길가에 선정비가 많았으므로 '비석거리'라 불렀다. 그런데 이곳은 1948년 왕송저수지가 설치되면서 수몰되었다. 한명수(1914. 9. 28. 초평동 227)

○ 절터

구봉산 중턱 뱃길재에 조선시대 중엽에 절이 있었으나 빈대 때문에 폐사되었다고 한다. 한명수(1914. 9. 28. 초평동 227)

○ 진더리골

아랫말 앞에 있으며 골짜기가 깊다. 흥봉기(1918. 5. 2. 초평동 247-2)

○ 천왕골

중간말 앞에 있는 골짜기로 현재는 농경지이다. 흥봉기(1918. 5. 2. 초평동 247-2)

10. 포일동(浦一洞)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의곡면의 포일동·포이동 및 갈산동이었는데, 1914년 부령 제111호에 의해 수원군 의왕면 포일리로 되었다. 그 후 1936년 10월 1일 일왕면 포일리로 변경되었고, 광복 후 1949년 8월 15일 화성군 일왕면 포일리로 되었다가 다시 1963년 1월 1일 시흥군 일왕면 포일리로 되었다. 그 후 1980년 12월 1일 의왕읍 포일리로 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 의왕시 포일동으로 개칭되었다.

이 마을은 청계산 및 학의리에서 흘러 내리는 하천(학의천)을 끼고 취락이 형성된 곳이므로 '포일동'이라 칭하였다. 이 포일동에는 구렁골, 덕장골, 벌모루, 샛터, 성고개, 세거리, 양지편, 임이, 진터 등의 자연 취락이 있다.

□ 구렁골

양지편 동쪽에 있다. 구렁지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하여 '구렁골'이라 칭한다. 양삼홍(1910. 10. 24. 포일동 242-8)

□ 덕장골(德莊谷)

현 서울구치소가 있는 곳으로 조선시대 중엽 좌참찬을 역임한 채세영(1490~1563)의 큰 별장이 있었으므로 '덕장골'이라 불렀다고 하며, 1986년 서울구치소 건설로 인해 폐동되었다. 평강 채씨와 동래 정씨의 오랜 세거지이다. 정형모(1916. 10. 5. 포일동 12)

□ 벌모루

넓은 들판 모퉁이 마을이란 뜻에서 한자지명으로 '浦隅里' 고유어로는 '벌모루'라 칭한다.

## □ 샛터(新基)

구렁골과 양지편 마을이 생긴 후 조선 말엽에 인근의 주민들이 새로 터를 잡고 형성된 취락이다. 덕장초등학교 뒤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양삼홍(1910. 10. 24. 포일동 242-8)

## □ 성고개

별모루와 임이(林二) 사이에 자리잡은 마을로 마을 주위가 마치 성을 에워싼 듯한 형상으로 되어 있어 '성고개' 라고 불렀을 듯하다.

## □ 세거리(三巨里)

의왕시 포일동과 과천시 문원동 및 안양시 관양동의 3개 시의 교차지점에 위치한 마을이므로 '세거리' 라 부른다. 조선조 중엽 순흥 안씨가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곳이다. 정창진(1924. 9. 30. 포일동 303)

## □ 양지편(陽地便)

조선조 중엽 김해 김씨가 처음으로 자리를 잡아 취락이 형성된 곳으로 마을의 지세가 남향반이로 벌이 잘드는 땅(向陽之地)이라 하여 '양지편' 이라 칭하고 있는데 조선 말엽에는 '양촌(陽村)' 이라 불렀다.

별모루와 청계동 한직골 사이에 있는 양지편은 우리나라 국어학의 태두인 이회승 박사가 1896년 6월 9일(음력 4월 28일)에 태어난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이 박사는 5세 때까지 이곳에서 살다가 선천(李宗植)이 살고 있는 서울로 이사하였다. 양삼홍(1910. 10. 24. 포일동 242)

## □ 임이(林二)

진터 동쪽에 자리잡은 마을로 순흥 안씨와 나주 정씨의 오랜 세거지이다. 마을에 큰 나무(느티나무)가 두 그루 있어 마치 숲을 이룬 것과 같다하여 '임이(林二)', 또는 '이미' 라고 부른다. 정창진(1924. 9. 30. 포일동 303)

## ○ 불당골(佛堂谷)

채세영의 신도비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일부가 서울구치소에 편입되었다. 정태진(1919. 12. 25. 포일동 200-3)

## ○ 비석거리(碑石巨里)

덕장초등학교 동쪽으로 채세영의 신도비가 있는 주변을 '비석거리' 라 부르고 있다. 채세영의 신도비는 채세영의 묘에서 약 70m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대리석 비신은 높이 278cm, 폭 99cm, 두께 24cm의 규모이다. 신도비의 앞면 상단은 전자로 「有明朝鮮國左參贊公神道碑」라 형서했으며, 이항복이 찬하고 허목이 서와 전을 맡았다. 의왕시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되었다. 양삼홍(1910. 10. 24. 포일동 242)

## ○ 새고지

서울구치소가 들어선 자리로, 마을이 있었다가 1986년 서울구치소가 건설되자 폐동되었다. 정태진(1919. 12. 25. 포일동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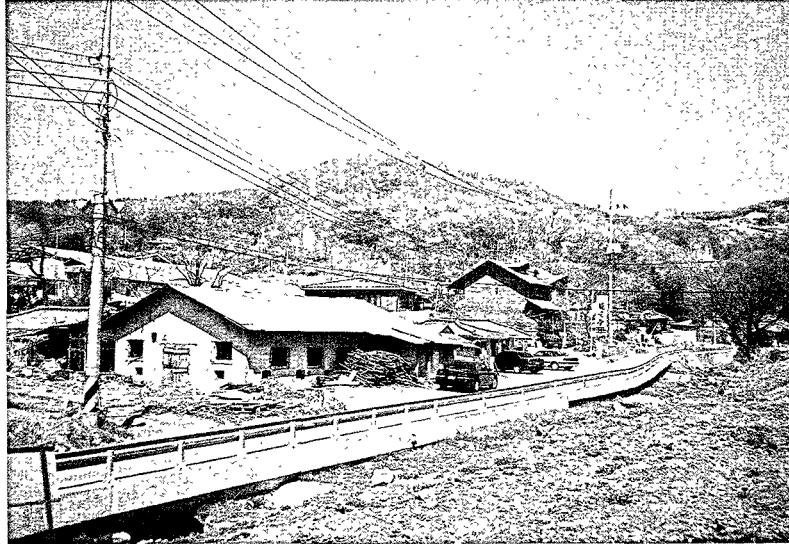


사진10. 임이마을 전경

#### ○ 서울구치소

덕장골 주변의 마을을 철거시키고 1984년 11월, 13만평 부지에 204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1987년 11월 12일 준공되었다.

본래 서울구치소는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었으며 본래의 이름은 '경성감옥' 이라 했다가 서대문형무소(1923), 서울교도소(1961)등으로 불렸다. 그 후 1967년부터 서울구치소로 개칭되어 내려오다가 건물이 80여 년 흐르는 동안 너무 낡고 위치도 도심지에 속하게 되어 도심을 벗어난 이곳으로 이전한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감옥으로 세워진 서울구치소는 2천 5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50개 동에 달하는 각 건물이 모두 지하통로로 연결되어 있어 외부에선 수감자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면회 시설도 대폭 늘려 1백여 명의 면회자 대기실을 마련하고 면회실을 32개나 설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취사도구로는 회전식 대형 압력솥 7개와 다단식 취사기 7대를 설치, 3천 명분의 식사를 1시간 안에 만들 수 있다(한국일보 1987년 10월 30일 기사).

#### ○ 소나무재논

양지편 끝(남쪽)에 있다. 논 옆에 소나무가 있어 '소나무재논' 이라 칭한다. 수답으로 2천여 평 남짓한 논이다. 정태진(1919. 12. 25. 포일동 200-3)

#### ○ 절터골

임이 동북 간에 있는 골짜기로 무재봉 줄기이다. 조선조 중엽에 절이 있었으나 빈대 때문에 폐사되었다고 한다. 정태진(1919. 12. 25. 포일동 200-3)

## 11. 학의동(鶴儀洞)

1914년 4월 1일 부령 제111호에 의하여 일제가 행정구역 통폐합하기 전에는 두 개의 큰 자연부락명인 학현동과 의일외동이 있었는데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두 지명의 첫글자를 각각 취하여 '학의리'로 개칭하게 되었다.

학현동은 크게 새터말(미나리골), 학현(웃말), 점말(아랫말)의 자연마을이 있고 학의2리에 해당하는 의일동은 오رن계, 속말, 북골, 양지말로 자연취락을 이루고 있다.

鶴儀洞이라 했다가 의왕시 승격(1989년 1월1일)으로 학의동이 되었다.

학의동은 학의1동(옛 학현동)과 학의2동(옛 의일외동)으로 나누어지는데, 학의1동은 점말, 새터말, 웃말, 아래말이 있으며(학현으로 통칭), 학의2동은 오رن계(오렁계), 속말(송말), 북골을 '의일' 2로 부르고 있다. 이명규(1935. 7. 7. 학의동 672)

### □ 북골(北谷)

속말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북골'이라 부르고 있으며 동래 정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서는 오رن계, 양지편, 속말 주민들과 함께 오رن계 초입에 있는 산등성이에서 해마다 음력 10월에 산신제를 지내오고 있다.

### □ 새터말

이 마을은 미나리가 많이 자생하고 있어 '미나리골'이라 불렀다가 조선 말엽에 학현 응단말에 살던 주민들이(주로 김해 김씨) 새로 터를 잡고 이룩한 마을이라 하여 '새터말'이라 부르고 있다.

학현 북쪽에 위치해 있는 새터말에는 전 색동회장 정인섭(1905~1983) 선생의 묘가 있고, 또 묘 앞에 현재명 작곡의 「산들바람」 동요비가 있다.

### 산들바람

산들바람이 산들분다.

달 밝은 가을 밤에

달 밝은 가을 밤에

산들바람 분다

아아 너도 가며는

이 맘을 어이 해!

마을에서는 학현, 점말 주민들과 함께 해마다 음력 10월 2일에 학현 웃말 서쪽 산등성이에서 산신제를 지내오고 있다(박용화, 『그리운 마음 표적삼아』, 1987). 김창식(1907. 11. 15. 학의동 109)

2) 현 의왕시 학의2동을 지칭하는 전통적 명칭은 '의일'이다. '의'를 발음할 때 단모음화시킨 발음을 대충 한자 '어'자로 취음하여 표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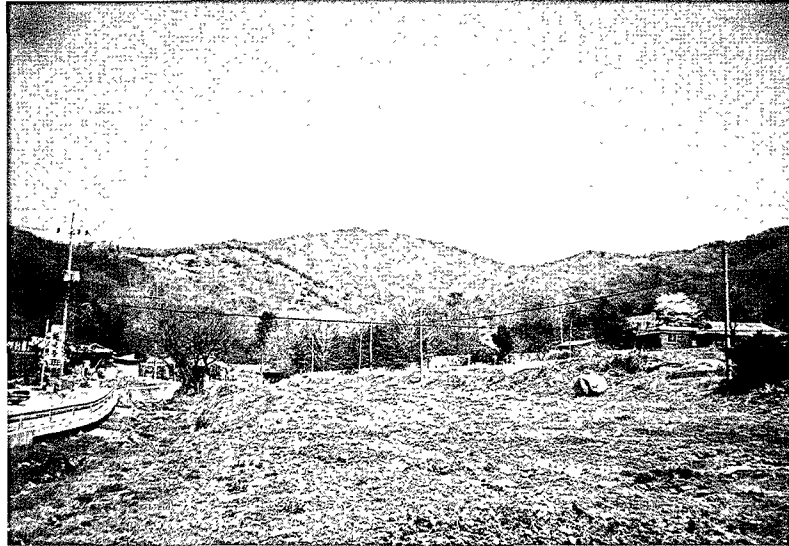


사진11. 학현마을 전경

□ 속말

오린계 동쪽에 자리잡은 마을로 이곳 방앗간 일대가 예전에 숲으로 우거져 있어 '수풀동'이라 했는데, 일제 때 한자 표기를 '수필동(樹筆洞)으로 하였다. 광복 후부터는 숲 속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속말'이라 부르고 있으며 동쪽지역은 '고분재말'이라 칭한다.

마을에서는 북골, 오린계, 양지편 주민들과 함께 오린계 초입에 있는 산등성이에서 해마다 음력 10월 1일에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이몽철(1923. 10. 1. 학의동 767)

□ 양지편(陽地便)

백운호수 초입에서 내손동 능안말 입구에 걸쳐있는 마을이다. 이곳은 남향반이라 햇볕이 잘 드는 지역이라 해서 '양지편'이라 칭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백운호수 제방 밑에 소나무, 오리나무 등이 우거져 있어 이 마을을 숲 밖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숲밖에'라 했다. 1953년 백운호수가 설치되면서 이 일대가 수몰되자 이곳 일대 주민들이 현재의 위치에서 살고 있다.

마을에서는 북골, 오린계, 속말 주민들과 함께 오린계 초입에 있는 산등성이에서 해마다 음력 10월 1일에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박창서(1917. 8. 15. 학의동 679)

□ 오린계(오링계, 오링개)

백운호수 남쪽에 있는 마을로 청송 심씨가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이래 반남 박씨, 광주 이씨, 동래 정씨 등이 세거해 왔다.

이 마을은 풍수로 보아 삼좌청룡(三左靑龍)으로 둘러싸인 마을이라 하여 오린계(五龍洞)라 칭하고 있다.

이곳에는 조선 중엽에 도승지를 역임한 박응남(1527~1572)의 묘가 있으며 마을에서는 북골, 오린계, 속말 주민들과 함께 오린계 초입에 있는 산등성이에서 해마다 음력 10월 1일에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박창서(1917. 8. 15. 학의동 679)

영조 35년(1759)경 간행한 『輿地圖書』나 기타 『大東地志』, 『南漢誌』 등에서 현 오린계는 모두 義谷面에 소속되어 있다. 문헌에 의하면 마을 명은 조선시대 말경에는 義逸外洞으로 확인되는데, 최근 오린계에 있는 南逸 朴公應男(諡文貞公) 묘비(1733년 세움)에 廣州治儀谷里 有原坐西面向卯者(아 여기 광주읍치 의곡리에 유좌묘향으로 된 동산-무덤이 있으니)를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의곡리'는 그대로 '의'를 뜻하며 오린계는 義 자의 고어 '을'이 '오른'으로 음운 변화하여 결국 계곡(谷)을 의미하는 '계'와 합하여 '오린계'가 되고 발음은 '오링계' 또는 오링개가 된 것이다.

한편 의일은 마을 형성이 옛 숲 밖이어서 올라오다 보면 오른쪽엔 '오린계', 북쪽엔 '북골', 잘 보이지 않는 고분재밑 속에 있는 '속말' (송말)로 이루어지고 예부터 가장 잘 알려진 '오린계'가 義谷으로 지칭되었음은 자연스런 지명유래로 생각된다. 오린계가 五隣洞에서 유래했다는 근거는 희박하고 오룡동은 거의 일반사람들이 모르는 지명이다(『의왕지역의 지명고찰』 I 이명규, 한양대학교 연구논문, 1990 참조).

이명규(1935. 7. 7. 학의동 672)

#### □ 점말(店村)

학현과 백운호수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이성근, 김영신, 장치운씨 등 세 사람이 마을 중앙인 박영환씨 댁 옆(학의리 425)에서 오지그릇을 만들었다 하여 '점말'이라 부르고 있다. 박영환(1923. 11. 1. 학의동 425)

#### □ 학현(鶴峴)

점말 동쪽에 있다. 이 마을의 유래는 이곳 응단말 동쪽에 있는 김해 김씨의 종산(宗山, 1980년대 초에 묘를 천장했음)이 풍수로 보아 학이 거동하는 형국이고, 웃말 북쪽에 있는 안동 김씨의 묘 역시 학의 혈이며, 웃말과 새뿔말 사이에 있는 골개를 '학교개'라 칭한데 연유하고 있다.

학현은 林씨가 처음으로 터를 잡은 이래 김해 김씨, 광산 김씨, 경주 김씨, 문화 류씨 등이 세거해 왔으며, 마을 남쪽지역은 '응단말', 북쪽지역은 '웃말', 중앙은 '아랫말'이라 각각 부르고 있다. 이곳에는 김정균(대사헌)과 김병익(선공감 부봉사)의 묘가 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10월 2일에 웃말 서쪽 산등성이에서 새뿔말, 점말 주민들과 함께 산신제를 지내오고 있다. 김창식(1907. 11. 15. 학의동 109)

#### ○ 가는장등

학현 긴장등 동쪽에 있다. 등성이가 좁으므로 '가는장등'이라 부르고 있다. 김구석(1926. 5. 11. 학의동 64-2)

#### ○ 가래골

학현 웃말 동쪽에서 약 500m에 있다. 이 골짜기에 가래나무가 많았다 하여 '가래골'이라 부르고 있는데, 현재는 가래나무가 없다. 김구석(1926. 5. 11. 학의동 64-2)

#### ○ 가마 터

점말 중앙인 학의동 425번지(박영환씨 댁 옆) 일대로 이곳에서 조선 말엽에 이성근 씨 등이 오지그릇을 구웠다고 한다. 박영환(1923. 11. 1. 학의동 425)

○ 가장골

오런계 굿타리골 북쪽으로 박응남(1527~1572, 동승지 역임)의 묘 가장자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박참서(1917. 8. 15. 학의동 679)

○ 감투바위

감투처럼 생긴 바위로 학현 호랑이골 서쪽 산 정상에 있다. 김구석(1926. 5. 11. 학의동 64-2)